

S-Oil,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 지원

S-Oil은 5월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문화재청과 <1문화재 1지킴이> 협약식을 개최하고,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

이에 따라 S-Oil은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 가운데 매년 보호종을 선정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.

또 S-Oil 2008년 첫 활동대상을 수질환경 지표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로 정하고, 조난 수달 구호 및 치료활동, 수달서식지 정화활동, 어린이 환경캠프 운영 및 생태교육 등 기타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.

한편, S-Oil의 참여로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에 동참한 기업은 총 24사로 늘었으며,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을 본격적인 활동대상으로 정해 사회공헌활동으로 뛰어난 첫 사례에 해당한다.

<화학저널 2008/05/15>